

“전선價 최고 13%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LG·희성전선 등 7~8%, 중소기업체 9~10% 인상 예정
전선의 시중 판매가격이 지난 8월에 비해 최고 13%까지 인상된다.

LG·대한, 희성전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선가격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7~8% 정도 인상할
예정인데다 중소기업체들도 9~10% 정도 가격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CV IV 등 일반전선의 경우 유통가격은 제조업체의 공급가격에 연동해 지난 8월에 비해
9~10%까지 오른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KIV CVV 등 저압 전선의 경우 최고 13%까지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다.

전선가격 인상 요인으로는 전선제품의 주 원자재인 전기동 가격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 8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 12월 2일 기준(LME 기준 1649 달러/톤)으로 6%
의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올 하반기 들어 제조회사들이 관납에 치중하고 있어 시중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
은 것도 가격인상 요인 중 하나다.

전선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LME에 고시된 전기동 값이 1465~1490 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2월 2일 기준 톤당 1649 달러까지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선유통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수요는 2001년과 비슷해 유통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올해 2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가격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전력계통건설처, 345kV XLPE 케이블 최초 포설

LG, 대한전선 5년 만에 자체 개발, 영서~영등포변전소간 T/L 첫 적용

국내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345kV XLPE 케이블 포설 공사가 영서~영등포변전소간 지중 T/L

9.8km 구간에 포설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8일 포설공사에 들어간 영서~영등포변전소간 지중 T/L 건설공사는 서울 남서부지역과 영등포지역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345kV 영서변전소에서 오는 2003년 6월 준공되는 신설 영등포변전소에 345kV의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345kV XLPE 2000mm², 단심케이블 2회선이 포설되는 이번 공사는 내년도 하계 부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 되고 있다.

올해 6월 송전을 목표하고 있는 이번 공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자체 개발한 금구류 포설을 완료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8일부터 포설 공사에 들어 갔다.

현재 LG전선이 포설하고 있는 1공구를 중심으로 포설공사가 진행중이다. 1공구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계통건설처 오철호 과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 되고 있는 이번 포설을 위해 금구류와 케이블 등을 자체 개발하는 등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며 “공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공구 공사현장 소장을 담당하고 있는 LG 전선 진용국 과장은 “지하 전력구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전 준비작업에 다소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주의하는 등 올해 6월 적기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계통건설처 지중선부 청장호 과장은 “만 5년 동안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 345kV XLPE 케이블은 기존 OF 케이블에 비해 송전용량을 약 50%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손실은 30% 정도로 저감시킬 수 있다”며 “국내 초고압 케이블 분야의 기술개발로 지중송전 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개가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배전용 변압기 표준화 추진

구매시방서 및 표준규격제정...2004년 적용, 총 10개 규격 130종에서 5개 규격 34종으로 한전의 배전용 변압기 운영 규격을 단순화하고 규격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최근 ‘배전용 변압기 장단기 운영방안’을 통해 주상변압기 규격을 현재 7개 규격 88종에서 3개규격 16종으로, 지상변압기는 3개규격 42종에서 2개 규격 18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차 붓싱, 탭전압, 2차 정격 전압 등 규격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배전용변압기 구매시방서 및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변압기 종류별 적용기준 제정 및 설계기준 개정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이번 제개정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2004년 구매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변압기 단순화·표준화 추진으로 한전은 관리·운영이 간편해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으며, 제조업체들은 부품 규격의 간소화로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변압기 시험 및 검사 기준도 개정, 소음 및 단락 강도 시험의 경우 한전에 납품시 매회 실시하던 것을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인정시험 성적서 유효기간도 앞으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기로 했다.

넥상스, 현대중에 해저광케이블 공급

넥상스(회장 제라드 하우저)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과 해저 광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넥상스는 지난해 11월 17일 최근 한국 현대중공업과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GN에서 가스밸브제어에 사용할 219km에 이르는 해저 광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넥상스가 현대중공업에 공급하게 될 해저용 케이블은 인도네시아 가스설비 거점인 쿠알라 텡카이부터 파나란 가스유전지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따라 포설된다.

또 케이블은 노르웨이 로그랑공장에서 생산돼 노르웨이 남부 라르빅으로 11의 철도차량에 코일 형태로 감겨 옮겨진 후 인도네시아 현지로 운송된다.

넥상스 해저 광케이블은 특히 노르웨이 로그랑공장에서 개발된 환경친화적이고 특화된 기술로 제작된다.

넥상스측은 이번 계약과 관련, 넥상스는 가장 앞선 통신 솔루션을 지원하는 고급기술의 케이블을 공급함으로써 해저케이블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저케이블이 설치될 해저면의 환경과도 조화를 잘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 송변전 투자 가속화

한전의 올 한 해 예산이 28조4779억원으로 책정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6일 본사 10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이사회'를 열고 2003년 예산(안) 및 외부자금차입과 전력채 발행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한전 손익예산은 △ 수익 24조6358억3700만원 △ 비용 22조

1529억7400만원 △ 당기순이익 1조7454억53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한전은 또 154kV · 345kV · 765kV 건설사업과 송변전 보강사업 등 송변전 부문 투자에 총 1조8421억6300만원을 투입하고, 전기품질유지 · 신규공급설비확충 · 검침선진화 등 배전 부문에 1조7960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비해 송변전 부문은 4.6%, 배전 부문은 2.9%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와 업무설비 등 기타 설비투자과 투자자산 · 예비비 등을 합해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총 3조9330억8000만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했다.

한전 관계자는 “자본예산 증가는 올해 765kV 건설사업이 지난해 비해 활발해지고 배전자동화 등 배전운영선진화 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올 한해 전체 소요자금 28조4779억3000만원 중 24조9038억6100만원을 전기판매수익 등을 통한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조5740억6900만원의 부족자금은 외부자금차입과 전력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비해 부족자금이 1조6758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차입금 상환과 법인세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올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12.1% 증가한 2224천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 예산편성에서 △ 제로베이스 및 성과 위주 예산편성 △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방침 달성 △ 해외사업 및 생산성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 사업부제 시행 대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한전은 또 수익 증시 경영과 자율적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핵심사업 및 생산성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사업부제에 대비해 책임단위별로 회계를 분리해 수익 · 비용을 계상하고 해외사업 등은 별도로 분리해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한전은 올 전력판매량이 지난해 비해 7.0% 가량 성장한 2992억1800만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